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추석 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2025.09.30 15:47 입력



▲추석 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9월 30일(화) 추석을 맞아 영암읍 5일장, 인근 마트 등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전지영 지사장과 직원들은 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농지를 작년 또는 올해 매도한 경우 1ha당 월 50만원(연 60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 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상한면적 4ha).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형'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061-470-5537)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